



장 남 익 선생

장남익 선생, 본명- 장보리브 니글라예위치는 원동변강 수창구역 신영동에서 1910년에 빈농현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부친 장희경씨는 1881년생으로 씨름 경북도에서 부모들과 같이 계시다가 1966년에 조령지 수창구역 다투지리촌, 신영동, 황거역등지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장남익 선생은 향촌에서 겨두노릇을 필한 다음 초중등 돌린구역 소재지 울리가 시에서 1925년에 졸업하고 1926년에 원동변강 연해국 중심인 블라지 보스크 시에 가서 중등 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에 필하였다. 초중등 나온후 이어고중에 들어가지 않고 기술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된것도 경제형편으로 연하여 공장제조소 전문학교를 나온 다음에 낮터런 자작업하여 돈벌어하고 밤이런 대학예과인 로동학원 에서공

부를하여 대학에서 입학시 없은 글라 입학하고 고등
 상학으로 수업한 예정이였다. 장남익 선생은 본래 결단성
 이 강하고 지심없는 분으로 자기 제학을 어김없이 실행
 하여 1924년에 원동변강원을 나와 그해에 원동변강
 에 가장 유명한 원동변강국립 종합대학 부설과에
 입학하여, 한인들에 대한 강제어족전까지 3학년
 년을 마감하고, 한인강제어족시에는 부모들과 분리되
 여 불타지 보는 또크 어족원들과 같이 격조흐스한 알
 라야따 시에 도착하여 알야따 시 국립종합대
 학에서 공부하였다. 강제어족 당시 장남익 선생의
 부모들은 원동변강 울진구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있던 한인들의 강제어족 열차는 워르
 벅크한 하유켄트주 상월킵구역 불릿모젠 꼴노르
 에 도착하였다. 장남익 선생은 어린한점에서 알야
 따 국립종합대에서 일년간 공부하고 부모들을 따라
 워르벅크한에 오게 되였으며, 공부하던 대학도 전
 학하여 하유켄트 국립종합대에서 공부하게 되였으
 며 장선생은 1939년에 종대 우틀라를 졸업하고
 워르벅크한 교육성의 파견에 의하여 상월킵구역 행정
 소재지인 도어-레바 시에 있는 고중에 가게 되었다.
 장선생은 도어-레바 고중에서 2년동안 우랄교원협
 교부직임으로 일하시던 1941년에는 하유켄트주 교육부
 의 파견에 의하여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불려살고있는
 원동종합 불릿-모젠에 있는 고중 교장으로 일하
 게 되었다. 이시기에 있어서 한인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취지에는 곧 애로가 생기였건마 그것은 한인어로 교수
 하던 교원들은 모어가 약하여 많은 교원들이 무직임상

해에 최하게 리였으며, 학생들은 한류어로 어찌까지
 교육받았는지 갑자기 큰어로 교육받게되니 역시 어로가졌
 다. 때로는 선생이 큰어로 과목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하여
 전반 학생들이 과목의 정확한 내용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
 나가는 데로 있었고, 또 학생들중에도 큰어가 특별히 중요한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과목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계속 되었다. 또 부분적 정도에 있어서
 는 학교에 교원우호는 그대로 있었으나 조선어라 되기 되었
 기 때문에 큰어로 통역하게 교수할 교원들이 부족하여부
 분적 과목들은 공백으로 지나가고 말았다. 이런 경우에서
 장남의 선생은 아주 팔방미인이었다. 장남의 선생은 한류어만
 능숙하게 잘 하였으나 한류어는 아주 미약한 반면에 큰어
 는 아주 능숙하였다 장남의 선생은 어디까지나 큰어로서
 공복하게 시작하였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언사대
 가 있었으나, 선생은 원릉변강 국립중대, 즉 러시아 대학
 수물리에 입학하여 공복하였는데, 감제어족 어족에도
 큰어로 교수하는 대학에서만 공복하였다. 때문에 한
 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집단검리 고
 층에 장남의 선생을 파견한것은 이런 내용으로 결
 속되었다. 장남의 선생은 어상에서도 알한바와같이 성질이
 아주 검박하면서도 강한 편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풍조는 많은
 경우에 자치조항이라곤 불려왔다 그것은 순전한 한일들로만
 구성된 검리란 말이다. 때문에 그 검리시대위에 출현
 학교 어기 때문에 학생성원도 99%는 한언아이들이었다.
 이런 학교에서 순크어로써 교육도 진행되지만 좀 힘들었다

그 당시 환경에 있어서 상부(영령)이 교육을 큰어른 하라고 하
 였기에 학교 내에서의 일체 총화는 큰어른 하려야 되었으며 이
 러 경우에서 학생들이 신속히 큰어른 소위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장 선생은 학교 내에서 기쁨을 강화하였으며 교육체제를 엄격하
 게 설립하고 각 학과 과목별 교수법으로 조직성있게 진행하였다.
 본래 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동아리에서에서 2년간 교육책임으
 로 일한 경력은 장 선생으로 하여금 교장 직무에서 용이하게
 일 할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규율은 교육에서만 강화한것이아
 니라 코룸에도 강화하였다. 조선 조국전쟁시기(1941-1945년)
 환경에서는 고등학생들이란 국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큰로움력이
 었다. 무조백년에 한하여서는 전쟁시기 가장 중대한 국가적
 임무는 독화살탄 수포로 제거하여 그의 걸음 제고함에 대연속
 학으로 제때에 건국어 국가적 수태 계획은 될수있는대로 기한
 전에 실행하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에서는 일련교
 육일과 9개월중에 3개월은(즉 9-11월) 본전공한 공부
 하러가, 그렇지아니면 많은 경우에 몇주일간동안 전혀 폐강
 하인 진공일 독화추위에 동원되어 일하였다. 그런데 독화추
 위에 있어서 기쁨강화는 학교 강당에서보다 한층 더 어렵었다.
 왜냐하면 넓다란 독화방에서 제1안대로 뛰어 다니며 일
 하는 학생들도 관리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었다. 그리화 장
 남익 선생은 학생군중속, 교원군중속에서 엄격하여서도
 영내성있게 굳센 규율을 수립하여 불꽃을 제 총검리
 지르자들의 회의에서로 수차 칭찬을 받았다. 장남익
 선생은 당시 30세 넘는 성숙되인 모든 방면으로 보아 잘
 준비된 인물이였으나 아직 2리장가전이였다. 바로 여대
 에 등 학교에는 역시 모든 방면으로 보아 잘 준비 되었으며 1억
 용으로 잘생긴 지리학 선생 박부레스다가 일하고 있던
 바 그 여자는 크라브노야르스쿠 시에서 교원대형을 졸업하
 였으며 20세 넘는 새씨값이였다. 두분은 아득을조

제 25 보병군단 본부에 도착한 장남익 선생은 당일 곧바로
 예후 구역 훈출방향을 파견되어 25군단 산하 1118 단근
 기지화 여단에 배속되어 평양까지 도착한다. 25군단
 정치부 지시에 의하여 인전사령부 폴라넨코 소장의 지
 시를 받으며 일하였다. 인전사령부란, 군대가 자기집령 지역
 에서 지방 인민기관을 지도하는 군인 정치기관으로서 군복
 을 입은 채도 항상 지방 인민기관과 접촉하면서 일하게



사진은 1946년에 장남익 선생이 자기의 친구들인 (뒤줄)
 장남익, 남봉식 (앞줄) 오기찬, 정영준 과 같이 찍
 은 사진이다.

7.
되었다. 당시 북한에서 제일 먼저 진행된 큰 정치적 의의에서의
사업은 호지개혁이다. 농민이 전연구 농부에서 60% 이상을



사정은 장남의 선생의 부인 박 나레스다 씨가 자기 딸 마라
와 아들 풀라와 같이 평양에서 1955년에 찍은 것이다.

차지하는 북한에서 호지개혁은 큰 혁명적 사변이므로 하였다
농민중에서도 호지가 전혀 없는 빈농민이 절대 다수인 나라에서
지주의 호지를 농부으로 몰수하여 빈농민들에게 가족부활에 따
라 분배하여 준다든 문제는 문제중의 문제였다. 이로 인하여
혁명적 지방 토에서는 살인사건, 화재사건 등이 빈번하였으
며 이당시에 많은 지주들은 남한으로 월남하였다. 장남의
선생은 이호지 개혁이 종말되자 산업국유화가 시작 되었으므로 인
하여 하로도 월남이 없어 각 지방으로 출장 다니며 월남시
였다. 1946년 4월날에는 본산나임에서 추가를 받아가려
고 자기 살고 있던 불릿웃셀 골초크에 가족대리역 왔다
가 돌아간다음 장남의 선생은 새로 규방조직된 내각 중앙
지도 간부 학교에 교원으로 파견받아가게 되었다. 내각 간부
학교는 공화국 내에서 높은 직위에서 월남한 전체 간부 - 즉 군
당, 중앙위원회 이상 각도 책임자 및 각성의 상등까지
합쳐 24기에 300명씩, 학습기간은 3개월, 제독은 획적

으로 간부양성원 - 다시 말하면 김일성-레닌주의 사상으로 재
 교육하는 학교였으며 학교의 명예교장은 김일성 수상이었고
 교육주임으로는 박영빈 선생이,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
 으로 계신) 역임하였다. 장남의 선생은 내각지로 간부학교
 에서 세계 정치지도관 파육으로, 2차 대전이후 세계 영혼
 들이 어떻게 분할 되었는가 하는 철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3년 동안 즉 1949년까지 교육은 계신과 같은 박영빈 선생
 이 중앙당 조직부에 출타하시라고 불을 대신하여 교육주임으로
 일하시였다.

1950년 8월 25일에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이 개시되자
 내각 간부학교 교육체계가 알아봄 변경되자 교육장실로 그대로
 동평양 사동에 계속 있을수 없었다. 전쟁개시 3개월이 지나자
 유엔군 항공 폭격이 심하게 되자 사립학교는 임시로 휴교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었으며, 조선인민군 조로 있고, 남조선 대의
 원 반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언제는 남조선 당 열성과 반어란
 것이 있고 이전처럼 내각 고급간부는 한명도 없었다. 장남의
 선생은 1950년 8월 중순에 당중앙위원회에 초청되어가시
 게 되었다. 당중앙에는 김일성 수상 외에 각 부장들과 기타 책
 임자들이 물론 회의 실이 남조선에서 되면서 내각 간부학교
 에서 공부한 간부들과 기타 당중앙 위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회의의 범위로 간단해졌지만 그 내용도 간단해졌으나 그 중
 대반을 제기했다. 문제는 원천근대가 남한 지역이 80%의
 명분을 해방해졌으나, 남한에 남노당이 없기는 하나 그 활약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김일성 수상은 남한에 새
 로 노동당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남로당원들이 어서라
 조선을 동당 각 지역별 지부들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8도에 도당 위원
 장 등을 파견하여 보내니 모른다 현지에서 도착하여 말쑥

그대로 조선로동당 도당 등으로 조직하고 이 전쟁의 복잡한 시
 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남한이 완전해방을 쟁취하라는
 지시적 회의였다 바로 이 회의에서 장남익 선생은 홍청룡은
 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남한으로 가게 되었다. 남한으
 로 출발하는 일행에는 남한에서 파견받아와 공부한 당원
 성자들과 당중앙위원 몇몇씩 배속 되었었다. 각근에 파견되
 는 일행에게는 현금 몇만 원씩 내어주고, 현지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당시 남한으로 계속 출발하는 군수를 현안 차들로 이용하
 여 가라는 하면서, 현안군 후방북사령관에게 지시하였다고 하
 였다. 기차표를 물게는 현지에 도착하여 도당위원장으로 서
 자기 주관대로 해결하라고 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남한으
 로 파견되는 사람돈에게는 그 즉시에서 해당직위에 임명장과
 로동당 중앙의 파견장을 받게 되었다. 장남익 선생도 홍청
 룡도당위원장으로의 임명장과 당중앙이 파견하는 파견장에
 김일성의 직인이 찍힌 것은 후에 받았다 그 파견장을 보면
 북한 권력이 여행되는 지역에서 어리던 때도 이리비 운반
 수단에 무효로 갈수 없었다. 장남익 선생은 어린 국가의 최
 고 수뇌자가 서명한 물건을 받아가지고 당에서 정해준 여원
 들과 같이 평양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다음 한강을 건너서 부쳐는 아주극심한 그 빙으로 정복
 도 소재지 철주까지 도착하였다. 도착하고 보니 9월 15일이
 되고 보니, 각 동강계선까지 나갔던 현안군은 유엔군에
 게 압로를 당해나 무질서하게 되었으며, 9월 10일에
 는 유엔군이 서울에 상륙하여 한창 2 방향으
 로 남으로 또 북으로 자기 세력을 넓히려 공격하는
 시기였다. 이런 환경에 봉착한 장남익 선생은 당조직에
 대한 회의 한번도 소집할사이 없이 어떻게 조직적으
 로 후퇴하며 다시 북한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불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쪽 청주는 영선군대가 인민군대가 지나가리다
안맞을 뿐더러, 2도 속취어는 영선군대가 들어오리다 알았다
눈에는 당중앙의 좋은 글장들을 찍었으나 이곳에서는 북한정
권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 불쌍지귀들어 되고 말았다. 그보다
도, 인민군대가 농용 백전 백승할 때에는 북한이 좋다고
자랑하던 많은 남한인민들은 인제는 북한을 침략자로 불
려 전쟁을 개시한 모든 불행의 장본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 이른 장남의 선생 동반자 중 남한 출신들은
전역다 야간을 리용하여 도망가버리고 인제는 북한 출신
인원 3명만이 남았다. 장남의 선생은 어떻게 하여서
우리 유엔군에게 포로 되지 않고 북한에 가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홍주, 개천 원주 출현을 점성하여, 강원도 평강유하여
평남 양덕 맹산으로 올라가려고 방법을 잡고 도보도 농곡을
향하여 걸었다. 선생의 계획은 유엔군이나 남한군대를 만나
지 말자는 계획이었다. 3일 만에 겨우 농곡에 도착한 자일
행은 발발이 나고 보니 더 걸어갈 수 없었다. 바로 이곳에서 여
관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처녀에게 지방 자위대에 복
잡혀 신병 조나라 시작되었다. 이때에 장남의 선생 일행
3명은 북한에서 파견된 빨갱이의 흉악스러움이라고 하여 처한
환경에 강금 된 것으로 본 사람 들어 있었다. 이튿날 바로 9월 25일
서울에 유엔군에게 점령되는 날이었다. 그 후 장남의 선생에
대한 소식은 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결에 의하면
유엔군에게 포로 되었으면 목숨은 살 수 있었으리라 하나, 장남
의 선생의 성격에 목숨은 살았다고 큰 길에 나가 유엔군에게
후방할 수는 없었다. 물론 지방 자위대는 아무런 형법도
준수 없이 있어 자기 맘대로 처리하였을 것은 사실이다.
장남의 선생이 중앙당의 파견에 의하여 남한에 나가신다
음 남의 선생 무인 박나제스라는 계북 내각 간부학교에서
로어 교원으로 일하리던 것을 사직하고 소련 출신 간부들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중국으로 피란 보내는 피란민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할빈시에 가지 되었다. 거기에서 피란민 가족들은 중국 정부에서 내어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며, 아이들은 할빈에 살고 있는 백제 러시아인 등의 자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조선 동족상잔이 1953년에 끝나자 조선 피난민들을 동년 8월에 조선에 다시 보내게 되자 백나제스다 양도 아이 오누이를 데리고 평양에 나와 소련 출신 아이들과 공부하는 6고공에서 교원일로 하시었다. 남한에 나가신 장선생의 소식이나 있겠는가 하고 전쟁이 끝이난 후 3년간 기다리다가 1955년 말에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말보릿~~ 말보릿골 골노코에 다시 와서 살아가 현재에는 하뉴켄호시 철안사르구에서 과식 오누이를 거느리고 해령스럽게 살고 있다. 장남 장이나 딸리는 지금 51세로 하뉴켄호 기술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국영 흥계 목에서 책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딸 장아라는 하뉴켄호 적조 기술대학을 막강하고 출가한 후 현재 울진그라드 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

백나제스다 안드레예나 양은 현재 연금생으로, 또 조선 혁명군 위원이며 허병원 유가족으로 국가보장을 잘받으며 행복하게 살면서 양과 된 조선의 신성한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하뉴켄호에서
6/24-98, 장남봉.